

신설 유·초·중학교, 3월 개교

전주 개발지구 신설 5곳·완주 이전신설 2곳 등 7개교

올해 신설 및 신설대체 이전하는 도내 7개 유·초·중학교가 준공을 완료하고, 오는 3월 개교한다.

3월 신설 개교학교는 단실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3개교다. 전주 에코시티에 전주새솔유치원, 전주자연초등학교, 전주화정중학교가 전주 효천지구에 전주효천초등학교, 전주 만성개발지구에 전주양현중학교가 각각 문을 연다.

신설대체 이전 학교로는 완주지역에 청안초등학교와 삼례중학교(삼례여중 통합, 남녀공학 전환)가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이번 신설학교 개교로 개발지구의 과밀학급 해소와 학생 통학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도교육청 담당자는 유·초·중학교가 한꺼번에 개교하는 에코시티 지역 내 신설학교를 방문해 개

교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전주화정중학교에 대해서는 내부시설물 정비와 강당 및 도서관 환경 정리에 대한 현장지원도 함께 실시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신학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부담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미 행정직원을 인사 발령했다. 또 학교급식 준비, 교수학습 물품 완비 및 실내환경 구축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학생과 교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 혁신교육 종단연구 대상학교 연구협력교원 설명회 개최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 필요성·연구 수행 절차 안내 등 진행

전북교육정책연구소는 27일 교육연구정보원 시청각실에서 '전북 혁신교육 종단연구' 대상학교 연구협력교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협력교원이란 경향연구·패널연구 설명회에 참여하는 학급 담임교사, 연구 총괄교사 등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서 지정할 교사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대상학교 연구협력교원에게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수행 절차를 안내하고, 연구 대상학교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한미라 책임 연구위원이 '전북

혁신교육 종단연구' 수행계획을 설명하고, 김예순 교육연구사가 '연구협력교원 업무매뉴얼'에 대해 안내했다.

전북 혁신교육 종단연구 대상학교로 선정된 곳은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29개교, 고등학교 21개교 등 총 99개교다.

앞으로 3년간 진행되는 종단연구에서는 학생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기 위해 학생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주체인 학부모, 교사, 학교장, 학교 변인도 조사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특히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3년간 반복·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를 실시해 전북 혁신교육에 대한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미래 전북교육과 혁신교육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기 소장은 "10년 차에 접어든 혁신교육 정책이 교육현장에서 구현되는 정도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학생의 사회·정의적 변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양적 종단자료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연구협력교원들에게 설문 참여 방법과 연구 수행 절차를 설명하여 원활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감은 지금 당장 본교섭에 임해야”

전교조 전북지부, 단체교섭 해태 전북교육청 규탄 기자회견 가져

전교조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는 27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북교육감은 지금 당장 본교섭장에 나와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단체교섭

해태 전북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5개월여에 걸쳐 18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현재 합의에 이르

지 못한 '교원의 업무정상화'와, '사학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내용이다.

전북지부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와 법인이 해당 지역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으로 규정한다”며, “전북교육청은 사학의 자율성만을 이야기하며 지도감독을 방기한다”고 규탄했다.

전북지와 도교육청은 실무교섭을 통해 많은 합의점을 이끌어 냈지만 총 600건의 교섭 안건 중 17개안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교육감은 교섭장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실무 교섭만 계속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관련 미합의 조항 대부분이 2011년 간체협약에서 합의한 조항이라는 것이다.

한편, 전북지부는 2011년 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 이후 8년 만에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



전교조 전북지부는 27일 오전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전북교육감은 지금 당장 본교섭장에 나와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단체교섭 해태 전북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주대, ‘산학관커플링사업’ 도내 최다 선정

6개 과정에 총 사업비 12억400만원 지원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2020년 대학 산학관커플링사업'에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됐다.

27일 전주대에 따르면 총 9개 대학이 참여한 '산학관커플링사업'에서 전체 25개 과정 중 6개 과정에 뽑혔는데, 이는 도내 대학 중 최다 선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인문사회 계열의 문화관광콘텐츠커플링, 식품경영커플링 사업, 이공 계열의 리빙랩기반한문화콘텐츠커플링, 스마트에너지커플링, 탄소융합커플링, 스마트시티커플링 사업 등 6개다. 올해 총 사업비만 12억 4백만원이다.



전주대학교는 '2020년 대학 산학관커플링사업'에 전북지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됐다.(사진은 커플링사업 인성교육 및 취업캠프 진행 모습)

전주대 커플링사업에는 총 16개 학과 290명의 교수·학생과 337개 기업이 참여해 사회맞춤형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80% 이상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사업 평가에서 3

개 과정 최우수, 3개 과정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호인 총장은 “그동안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학 협력 활성화

에 기여한 노하루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 산학협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교내 입주 상가 임대료 인하

총 18개 업체 대상 3월부터 2개월간 임대료 20% 감면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내 입주 상가를 대상으로 두 달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27일 전주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진 상가들의 매출 감소를 돕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임대료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교내에 입주해 있는 수익상가 총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2개월간 임대료 20%를 감면한다.

전주대 관계자는 “학교에 입주해 있는 상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가장 부담되는 고정비 항목인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제적 임대료 인하, 감염예방 활동,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등의 임시 휴관과 방역소독 조치를



실시했으며, 손소독제, 체온계, 열화상 카메라 비치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직원들 대상으로 인근 상가 이용 장려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다중이용시설 운영 잠정 중단

도서관·박물관·인재등용관·부안연수관 등 휴관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교내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27일 전북대에 따르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도서관을 오는 3월 15일까지 임시 휴관기로 한 것을 비롯해 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 역시 휴관하기로 했다.

또한 대학 개강 연기와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원도 3월 16일까지 개강을 2주 연기하기로 했고, 고시 준비반인 인재등용관과 부안연수관도 상황 종료시까지 휴관한다.

대학 내 식당이나 편의점, 커피숍 등도 잠정 운영 중단이나 단축 운영을 하기로 했다.

우선 제2학생 식당과 후생관 식당, 중앙도서관 편의점과 커피숍, 학습도서관 편의점 등이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인 아로마미실 등 교내 곳곳의 커피숍 등도 단축 운영된다.

전북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대학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 조치를 강화했다”며 “대학의 대응 역량을 총동원하고, 범정부적 협조체계도 강화해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